

## 유배 배행일기의 서술전략 연구\*

조수미\*\*

### <차례>

1. 서론
2. 유배 배행일기의 서술목표
3. 신원(伸冤)을 위한 서술전략
  - 1) 직접적 해명
  - 2) 간접적 해명
4. 결론

### <국문초록>

유배 배행일기는 유배되신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스승의 유배길을 아들이나 손자, 제자 등이 배행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일기를 말한다. 유배인과 배행인의 관계적 특수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개 유배인과 배행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배 배행일기는 배행인 개인의 경험과 소회를 아무런 목표와 의도 없이 기록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배행 일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서술목표는 유배되신 어른들의 진정한 ‘신원(伸冤)’을 위해, 유배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그분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배 배행일기들이라 할 수 있는 <남행록>, <북천일록>, <창구객일>을 살핀 결과 그러한 서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배의 빌미가 되었던 상소문의 내용과 상소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직접적 해명의 서술전략’과 유배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유배길에 나선 어른들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전하고 그분들의 당당한 태도와 인품을 서술하는 ‘간접적 해명의 서술전략’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362)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직접적 해명의 서술방식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원을 위한 근거 확보에 기여한다. 간접적 해명은 비록 무죄를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유배를 납득시킬 수 있는 공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서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신원을 위해 유배 배행일기에 어떤 서술전략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가까이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다른 유배일기를 이해할 단서를 얻고, 더 나아가 가서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배 배행일기, <남행록>, <북천일록>, <창구객일>, 신원(伸冤), 서술전략

## 1. 서론

유배 배행일기는 유배되신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스승의 유배길을 아들이나 손자, 제자가 배행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일기를 말한다. 유배인과 배행인의 관계적 특수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개 유배인과 배행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유배 배행일기는 배행인 개인의 경험과 소회를 아무런 목표와 의도 없이 기록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유배를 겪고 계신 어른들을 가까이서 배행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일기는 어떤 의도와 목표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서술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유배일기를 ‘유배 노정과 유배지에서의 생활 등 유배와 관련된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범박하게 정의한다면 유배 배행일기도 유배일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배 배행일기는 ‘유배 일상’을 다룬 것은 맞지만 유배를 ‘1인칭’으로 기록한 일기라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유배를 당한 당사자가 1인칭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만이 유배일기로 규정

되어야 한다면 유배 배행일기는 예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유배 배행인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유배인의 유배 생활을 관찰자의 입장, 방관자로서의 입장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자면, 유배인과 유배 배행인은 정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상태로 유배 생활을 함께 겪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유배 경험에 대해 유배인과 유배 배행인이 기록한 일기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유배 배행인이 쓴 일기는 유배인과 유배 배행인의 공동기록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배 배행일기가 유배일기라는 범주에 속하면서도 독특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유배 배행일기의 서술목표와 서술전략을 살피기에 앞서 유배 배행일기가 품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전하는 유배 배행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sup>1)</sup> <가정경술일기(嘉靖庚戌日記)>는 이교(李喬)가 아버지 온계 이해(溫溪 李灑)의 유배와 사망까지를 기록한 것이고, <남행록(南行錄)(남당일기)>는 박조수(朴祖壽)가 조부 박성원(朴盛源)의 흑산도 유배를 배행하고 기록한 일기이다. <백사선생 북천일록(白沙先生北遷日錄)>은 정충신(鄭忠信)이 스승 이항복(李恒福)의 북청 유배 및 상장례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병인일기(丙寅日記)>는 이병탁(李秉鐸)이 아버지 이우(李禹)의 강진 고금도 유배를 배행한 일기이고, <중암선생피나후일록(重菴先生被拿後日錄)>은 김평묵(金平默)의 제

1)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236쪽 참조. 그런데, 유배 배행일기 분류에는 다른 고전 일기류 작품의 분류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령 ‘일기’와 ‘회고록’의 중간적 성격을 보이는 작품과 공격 성격이 강한 작품을 포함 시킬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작품의 목록화가 수월하지 않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 배행일기로 분류하는 작품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유배 배행일기’라는 용어는 유배일기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유배 경험과 기록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타의 유배일기와 변별되는 특징을 가진 작품들을 따로 지칭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

자가 스승의 전라도 지도 유배를 배행하고 남긴 일기이다. <창구객일록(蒼狗客日錄)>은 이재(李裁)가 부친 이현일(李玄逸)의 함경도 종성 유배 때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 가운데 본고는 <남행록>, <백사선생북천일록>(이후로는 <북천일록>으로 표기함), <창구객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일기들이 차례대로 할아버지, 스승, 아버지의 유배를 손자, 제자, 아들이 배행하고 기록한 일기들로서 각각의 상황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작품들은 번역이나 해제, 관련 연구 등에 있어서 다른 배행일기들에 비해 성과가 어느 정도 쌓여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배행일기의 서술전략을 살피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마무리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논의의 결과는 다른 배행일기의 검토에 역검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행록>은 표제는 ‘南行錄’으로, 내제는 ‘남정일기’로 기록되어 있다. 드물게 한글 필사로 전하는 작품인데 다른 한글 유배일기들과 함께 유배 체험의 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었다.<sup>2)</sup> <북천일록>은 유배인이 백사 이항복이라는 점,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 폐비 윤씨를 둘러싼 침예한 정치적 갈등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활발히 논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생각보다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번역과 해제작업은 마무리되었으니 일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할 것이다.<sup>3)</sup> <창구객일>은 아직 원역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종합 연구서가

2) <남행록>에 대한 연구로는 최강현, 「남정일기를 살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어문논지』 4-5, 1985, 121~130쪽; 이승복, 「유배체험의 형상화와 그 교육적 의미-조선 후기 국문 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1~62쪽;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1~303쪽 등을 들 수 있다.

3) 번역과 해제는 임재완 편역, 『백사 이항복 유목첩과 북천일록』(삼성문화재단, 2005,

나와 있다.<sup>4)</sup>

이처럼 〈남행록〉, 〈북천일기〉, 〈창구객일〉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배 배행일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이들을 유배 배행일기라는 범주로 묶어 함께 논의한 경우는 없다. 이 일기들에서 발견되는 서술전략은 유배 배행일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2. 유배 배행일기의 서술목표

### -신원(伸冤)을 위한 기억의 저장

서술전략을 서술목표와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다. 유배 배행일기의 서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기록 행위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우선 살펴보자.

〈남행록〉의 서술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아내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일기 말미에 ‘아내가 늘 흑도왕환(黑島往還)의 간신(艱辛)함과 거기가 머물던 일을 듣고자 하였으나 성품이 게을러 뒤늦게 책을 완성하였다.’<sup>5)</sup>

---

1~171쪽)과 신해진 역주, 『북천일록』(보고사, 2020, 1~374쪽)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일기의 ‘충신언행록(忠臣言行錄)’적 성격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성형, 「만운 정충신의 백사선생북천일록」,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45, 2016, 157~192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일기는 백사 선생이 유배지에서 갑자기 종신(終身)한 까닭에 급박하게 상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 민속학적 연구대상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 4) 종합 연구서인 이병갑 편저, 『창구객일 연구』(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1~656쪽)는 부제(밀암 이재의 유배시종실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에서 볼 수 있듯이 17세기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유배 실상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윤영의 「창구객일의 서술방식과 기록의식」(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 1~102쪽)에서는 〈창구객일〉의 기록의식 가운데 가장 먼저 ‘伸冤을 위한 告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말하고 있는 배행일기의 서술목표와 유사하다. 신원적 성격은 유배 배행일기의 태생적 특성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문면 그대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아내 한 사람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일기 한 편을 기록했다기 보다는, 아내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함께 읽히기 위해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현전하는 형태가 한글 필사본인 것으로 보아 여성 가족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한자를 익히지 못한 아이들도 독자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남행록>의 필사본 말미에는 ‘식증조모필사’라는 글자가 남아있는데, 이로써 여성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여 필사와 소장이 가문 내에서 이어진 정황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아내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며 대강만을 기록한 것일 리가 없다. 할아버지의 이유(죄) 없는 유배와 고단한 유배 생활을 그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하지는 것이 <남행록> 기록의 서술목표였을 것이다.

<창구역일>은 밀암 이재가 아버지 갈암 이현일의 유배를 배행하고 기록한 일기이다. 갈암은 퇴계학 계보를 잇는 영남의 대표 성리학자였지만, 노론이 장악한 조선 후기 정치적 상황에서는 중앙 정치 권력으로부터 견제를 당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유배도 이런 정치적 상황과 관련 깊다. 따라서

---

5) 집안 녀(해독불가)니 모양 흑도왕환의 간신히과 게 가 머무던 일을 듯고져 호야 일기를 써 나라 후디 내 성품이 게어르기 심호여 이제야 이 칙을 일위시되 그 중 세쇄흔 말과 불인흔 말과 번지흔 말을 다 싸히고 약간 기록하나 기록하는 말도 하니홀 쓰매 열흘 싸지운 재 만흐니 비록 애둡스오나 짐작호여보옵소(037a~037b) \* <남행록>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다. 한글 필사 유일본으로 본고의 인용문은 필자가 띄어쓰기와 현대어역을 하였고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다. 처음부터 009a면(1775년 11월 18일)까지는 일기의 서두에 해당된다. 유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일들과 유배길에 따라나선 사람들, 주변인들의 위로와 격정 등이 서술되어 있다. 할아버지 박성원이 1775년 11월 17일에 상소를 올렸고, 실록에 의하면 그날 바로 유배가 결정되어 이튿날인 18일부터 유배 노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날짜와 지나는 지역명, 날씨 등이 규칙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8일 이전의 일기들은 규장각 제공 원문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창구객일〉은 아들인 밀암이 아버지 갈암의 유배생활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신원을 이뤄내고자 했던 절박한 바람을 염두에 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밀암은 이 일기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인정국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일종의 갈암문학의 비기(祕記)로 여겨졌으며 개인의 사사로운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임을 시사한다.<sup>6)</sup> 당장 다른 사람에게 열어 보여줄 수도 없는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 기록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협하게 여겨질 정도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기록은 때가 되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김성택(金聖澤)이 쓴 밀암의 행장에도 그가 아버지 갈암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꼼꼼히 자료를 모으고 “백 년 뒤에라도 논의가 정하여질 날에 대비”<sup>7)</sup>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여 그 시비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말을 후세에 전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창구객일〉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8)</sup>

6) 이병갑 편저(2014), 앞의 책, 121~122쪽.

7) 景宗初元, 天澤再降. 輒爲當路所沮尼, 門生士林前後再舉幡訟冤, 竟不得徹聞. 公抑鬱痛迫, 欲草疏自明而不可得. 乃就甲戌日錄之末, 附書前後臺章及士林伸辨疏, 具著事之首尾, 以待百年論定之日.(『밀암집』 권24, 부록 〈行狀〉) 경종 즉위 첫해에 천택이 다시 내려졌는데 번번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서 막아서는 바가 있었다. 문생과 사림 등이 거듭 억울함을 아뢰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이 분하고 답답함을 참고 상소문을 초하여 스스로 밝히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이에 갑술일록의 말미에 전후 상소와 사림들의 변호하는 상소들을 부기하여 기록하였다. 일의 수미를 갖추어 기록하여 백 년 뒤에라도 논의가 정하여질 날에 대비하고자 하였다.(필자 역)

8) 凡此數月之內, 所經歷許多酸醜, 宜卽遂旋筭記, 以備他日遺忘.(무릇 이 수개월 내에, 고통스럽게 겪은 허다한 바를 마땅히 곧 기록으로 남겨 다른 날 모두 잊는 것에 대비한다. 〈창구객일〉 1694년 윤5월 1일) \* 〈창구객일〉의 인용문은 이병갑 편저(2014), 앞의 책의 표점 원문을 인용하여 필자가 의역하였다. 이후로 〈창구객일〉은 서기 연도와 날짜만 표시한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할아버지의 유배 전모에 대해 알리기 위해 기록한 <남행록>과 훗날을 대비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창구객일>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진정한 신원이다.

유배인의 신원은 해배(解配)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해배와 동시에 신분이나 관직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신원은 유배의 부당함에 대해 인정받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sup>9)</sup> 따라서 배행일기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의 ‘죄 없음’을 다각도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서술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술전략은 유배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접적 해명과 우회적 방법으로 유배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간접적 해명의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3. 신원(伸冤)을 위한 서술전략

#### 1) 직접적 해명

직접적 해명이란 유배원인에 대한 해명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유배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을 말한다. 유배의 빌미가 된 상소문의 내용과 상소문을 올리게 된 과정 및 관련된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유배되신 어른들이 죄가 없음에도 유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 (1) 상소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죄를 짓지 않았는데 유배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죄목이

9) 따라서 유배 배행일기의 저자가 염두에 둔 독자는 일차적으로는 가문의 구성원들과 당대의 정치집단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훗날 이 일(유배)을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터무니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죄의 빌미가 되었던 상소문이나 유배 관련 정황에 대해 가장 먼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남행록〉의 서두에는 할아버지 박성원의 유배에 빌미가 되었던 상소문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다.

남강로의 상소가 비록 침정(沈靜)치 못하나 그때 대신이 옳은 사람을 구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청(政廳)하여 죄를 만들어 필경에 죽이기에 이르니 도성만민이 보고 슬퍼함에 친척이 아니라도 눈물 흘리고 친함이 없어도 마음에 놀라지 않은 자 없으니 다름이 아니라 언관(言官)을 죽임을 놀라워함이라. 언관이 죄를 입으면 대신이 구하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 사백 년 이롭다운 일이 거늘 이제 대신은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청하여 죄를 더하니 식자(識者)의 한심함이 마땅히 어찌하리오. 언로(言路)의 열리고 닫힘이 실로 국가의 망하고 흥함에 관계하거늘 요사이 대신의 (해독불가) 병어리 되기를 쉽게 여겨 언관을 시켜 천방백계(千方百計)로 피하다가 나중에 엄명에 이르러서야 혹 잠깐 나오나 다만 옛날에 쓴 것을 베껴 전하는 것으로 방책을 삼고 한 말과 한 일을 의논할 자가 있단 말을 듣지 못하오니 신이 실로 개연(慨然)하고 부탄(浮誕)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이다. 엮드려 원컨대 간하는 말이 오는 길을 삼으시고 인하여 남강로의 억울하게 죽음을 신설(伸雪)하시며 특별히 그 관작을 회복하시어 그의 자식과 홀로 있을 아내를 위로하시며 또한 팔방으로 우리 전하의 뉘우치고 깨달으신 큰 덕을 알게 하소서. 신이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sup>10)</sup>

상소문의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글을 정확히 기록에 남기는 일이 우선이다. 박성원의 이 상소문은 실록에도 실려 있는데,<sup>11)</sup> 〈남행록〉의 기록이 실록보다 더 상세하다. 실록에는 상소문의 요지가

10) 〈남행록〉 003b~005a.

11) 대사간 박성원(朴盛源)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남강로(南絳老)의 소어(疏語)가 비록 알맞다고 하기에는 흠이 있지만 그 당시에 대료(大僚)가 정청(庭請)하여 그 죄를 성토하고 마침내는 주륙(誅戮)하게 되니, 도성의 백성들이 눈물을

기록되어 있으나, 일기에는 전문이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소문 안에 이미 상소문 작성의 취지와 이유, 정당성 등이 표명되어 있다. 언관(言官)인 남강로가 폐비와 관련된 일로 상소를 하였는데 이것이 왕의 노여움을 샀다. 다소 경솔한 언사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언관으로서의 책무를 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왕의 노여움 앞에서 언관을 보호해야 할 조정 대신들은 오히려 남강로의 죄를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원이 이 일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손자 박조수는 상소문의 전문을 먼저 기술한 다음에 이어서 할아버지가 상소문을 올리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당시에 시묘살이 중이었는데, 왕이 벼슬을 내리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벼슬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려나 있는 신하를 불러주는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마침 남강로의 상소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정국이 어수선하여 ‘옳은 말이 오히려 화를 부를 것’을 예상하고 주위에서 만류하였지만 끝내 할아버지가 상소문을 올린 까닭은 오로지 왕에게 옳은 말을 전하고자 하는 충심 때문이라고 손자 박조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요컨대, 충직한 신하를 잊지 않고 불러주는 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충심을 다한 결과가 바로 이 억울한 유배의 전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남행록>은 상소문의 내용과 관련 정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할아버지 박성원의 무죄뿐만이 아니라 충심까지도 증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홀리고 사방에서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그가 대신(臺臣)이었고, 언사(言事)였기 때문입니다. 언관(言官)이 견책(譴責)을 당하게 되면 대관(大官)이 신구(伸救)하는 것은 실로 우리 왕조(王朝)의 아름다운 일인데, 오늘에 와서는 도리어 죄를 성토하는 행위를 하였으니, 식자(識者)들이 한심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히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남강로를 신원(伸冤)하여 주시고 이어서 그 벼슬을 회복시켜 주어 그의 고아(孤兒)인 자식과 과부인 아내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전하께서 회오(悔悟)하신 성덕(盛德)을 모두 알게 하소서.”(영조실록, 51년 11월 17일)

〈북천일록〉에는 1617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인 1618년 8월 7일까지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초반부에는 백사공 이항복이 유배 가게 된 이유와 유배지 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압송관 이숭의와 함께 유배길에 나서게 된 1618년 1월 8일 이전까지의 약 두 달의 일기들은 모두 이에 대한 기록이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발단은 인목대비 유폐를 둘러싼 조정 내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허균이 무리배를 시켜 인목대비 유폐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리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이 일기책의 첫 장을 차지하고 있다. 상소문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 조정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때 이미 조정에서 물러난 지 5년이나 된 백사공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명이 내려졌다. 선생은 조정에서 온 관리를 통해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것은 효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요지로 소를 올렸다. 그러자 이제는 백사공을 비롯하여 인목대비 유폐를 반대한 관리들에게 벌을 줄 것을 청하는 상소가 빗발쳤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삼사가 한목소리로 합계하여 ‘백사공이 순임금을 예로 들며 효를 다할 것을 말하였으나 순임금이 그 어미로부터 핍박받았던 때는 필부(匹夫)였을 때이므로 왕의 일과 함께 논할 수 없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이항복을 절도에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였다. 처음 왕의 비답(批答)은 단지 관직만 삭탈하라는 것이었다. 합사가 두 번, 세 번 거듭해 백사공의 위리안치를 청하였을 때까지도 삭탈관직만을 명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합사가 올라오자 ‘벼슬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내쫓아라’,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게 하라’고 하다 결국 ‘멀리 귀양 보내라’는 것으로 왕명이 바뀌게 되었다. 허균과 이이첨의 무리는 그들의 의도대로 백사공을 유배형에 처한 뒤 이제는 유배지 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백사공의 유배지는 용강(龍岡)이었으나, 창성(昌城)으로, 다시 남관(南關)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북청(北靑)으로 결정되었다. 점점 유배지가 북방 험지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유배길을 떠나기 전 이이첨과 허균의 무리가 백사공의 집 주변을 감시하며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정황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북천일록>에는 백사공이 북청으로 유배 가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처음 선생이 올린 인목대비 유폐 반대의 의견이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삼사가 합계한 내용은 백사공의 견해 가운데 무엇을 꼬투리 삼은 것인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 왕명이 점점 가혹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조정의 관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지, 허균 무리가 백사공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전반부의 일기들은 하나같이 백사공은 올곧은 선비로서 마땅한 의견을 내었을 뿐인데 허균과 이이첨의 무리가 간사한 책동을 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남행록>과 <북천일록>에 기록된 상소문과 상소문이 작성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하고도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 일기의 저자들은 할아버지 박성원과 스승 백사 이항복의 유배가 파렴치하거나 도에 어긋난 죄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 (2) 조정 동향에 대한 설명

상소문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외에도 훗날 신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또 있다. 유배를 전후한 시기에 조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유배 결정이 죄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결과임을 말하기 위함인데, 결국 유배되신 이 어른들이 정적들의 정치적 책략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개 이때 역신 후결과 인한이 나라 정사를 오로지 하여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고 역심(逆心)을 품어 흉모(凶謀)와 비계(秘計)를 서로 난만히 의논하여 제 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다 모해하니, 이때 남강로가 대간으로 있어 이판 이담을 논박(論駁)하니 이들은 후겸의 혈당(血黨)이니 세상에 권세 있는 가문에 붙어 정사를 다 그 분부대로 하여 (해독불가)이 하나도 없다 하니 선대왕께서 처음은 형문(刑問) 처 귀양보내라 하시더니, 영의정 신회 또한 후겸의 사람이라 백관을 거느려 정청(政廳)하여 남강로의 죄를 만들어 죽이자 다투니라. 선대왕께서 이때 역신의 속임을 깨치지 못하오시고 필경 (남강로를) 죽이시니 세상 사람들이 뉘 불쌍하다 아니할 자 있으리오. 그 죽일 때에 성중 남녀노소 다 문밖에 이르러 탄식하기 (해독불가) 눈물 흘리는 자 많더라.<sup>12)</sup>

〈남행록〉에는 이처럼 (정)후겸과 (홍)인한, 그리고 그들의 수하라 할 수 있는 이판 이담과 영의정 신회 등이 연관 남강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음이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겸과 인한 일당들이 나라 정사를 전적으로 자신들의 독단에 따라 쥐락펴락하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한 이유는 결국 할아버지 박성원의 유배 또한 이들에 의해 결정된 억울한 일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상소문의 내용이 충심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은 그 시절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언로가 열려있고 도가 바로 선 시절이었다면 충심이 담긴 남강로와 박성원의 상소문은 유배의 빌미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남행록〉은 당시가 충심이 담긴 상소문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때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할아버지의 유배는 상소문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언로가 막힌 잘못된 시절 때문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계축년 이후로 당시 사람들이 폐위되고 유폐된 금옹(金壙)의 일을 주장하였

12) 〈남행록〉 005a~006a.

는데 일이 이미 절박하였다. 우참찬 허균은 김개, 이강으로 하여금 호남과 영남의 무뢰배들을 피어 끌어들여 거짓으로 마치 유생인 듯한 자들이 자기 집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잇달아 소장을 올리게 하였다.<sup>13)</sup>

〈북천일록〉의 첫 장면이다. 이 첫날의 기록은 이 일기가 줄곧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승의 유배는 인목 대비 유폐와 관련된 것인데, 허균이 이에 대한 조정의 여론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와중에 백사선생이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정충신의 생각이 이 첫날의 일기에 매우 간명하게 서술되었다.

〈북천일록〉 215여 일의 일기 가운데 1628년 5월 13일에 백사공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은 이후의 일기는 상장례 과정에 대한 기록이고, 1618년 5월 13일 이전 140여 일의 일기는 유배에 초점이 맞춰진 기록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처음 17일간의 일기는 백사공이 유배 가기 전 조정의 분위기와 유배가 확정되고 유배지가 정해지기까지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백사공의 상소문, 그리고 백사공에게 벌을 줄 것을 청하는 신하들의 상소문들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논의에 참여한 정적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허균이 피어서 사주한 것이다’, ‘이이침이 허균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 것이다’라는 적의에 찬 노골적 표현들을 서슴지 않았다. 〈북천일록〉의 전반부 일기들은 이처럼 백사공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들로 가득하다.

13) 自癸丑以後 時人主金慵事 事已逼迫 右參贊筠 使金闔李沆 誘聚湖嶺無賴之徒 僞若儒生者 自家供給 相繼投蔬(〈북천일록〉 1617년 11월 1일) \* 본문과 주석의 인용문은 원문과 해석 모두 신해진 역주(2020), 앞의 책을 참조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영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이후로 〈북천일록〉은 서기 연도와 날짜만 표기한다.

정양윤, 김호가 백사공을 찾아와서 인사하며 말했다. “작년에는 우리들이 대감을 이곳으로 보냈는데 금년에는 대감이 우리들을 이 길에서 만나고 있으니 인간사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잘 엮고 뒤집힙니다만 지난해의 일은 어찌 우리들의 본심이였겠습니까? 다만 차마 한꺼번에 죽지 못했을 따름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또 뜻밖에 일어났는데...” 움츠리며 부끄러워하는 후회하는 기색이 말 밖으로 넘쳐났다.<sup>14)</sup>

특히 백사공의 유배를 청했던 사람들이 백사공을 찾아와 그때의 그 결정이 본인들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북천일록> 곳곳에 허균이 그 일당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양훈과 김호도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스스로 그 일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굳이 백사공을 찾아와 밝히고 있다. 백사공 유배의 부당함을 증언하는 것으로 이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한 것은 드물 것이다.

<창구객일>에도 갈암의 신원을 대비한 많은 자료가 실려 있다. 갈암이 1694년에 유배된 데에는 경신대출척에서부터 기사환국, 갑술환국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당쟁사의 복잡한 사정이 그 내막에 깔려있다. 경신대출척 때 유배되었다가 기사년에 해배된 조사기의 ‘疏’를,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노론이 문제 삼게 되면서 조사기를 옹호하는 논의를 펼던 갈암도 함께 휩쓸리게 된 것이다. 요컨대, 기사환국으로 집권했던 남인을 향해,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노론이 일종의 정치적 보복을 가하는 형국인 것이다. 따라서, <창구객일>에는 1694년 유배 직전의 일들만이 아니라, 1689년 기사환국 당시의 일들과 일기가 시작하기도 전의 조보(朝報) 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자료들이 많이 부기(附記)되어 있다.<sup>15)</sup> 조정의 동향을 알 수 있는

14) 鄭良胤·金明來拜公曰 “去年我等送大監於此地，今年大監見我等於此路，人事好變覆，然往年之事 豈我等本情？ 只不忍一時死耳，爲惡且不意…” 其縮惡悔吝之色，溢於言外。(〈북천일록〉 1618년 3월 12일)

가장 유용한 정보는 아마도 조보일 것이다. <창구객일>이 특별히 주목한 것이 바로 조보이다. 그러나 조보는 원래 중앙관서에 소속된 전·현직 관료들과 지방관이 수령자로 정해져 있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보의 독자는 서울의 경우 의정부와 육조, 승정원과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3사, 한성부 및 기타 각사의 당상관과 당하관급 관원, 종친들이 포함되었고, 지방의 경우 8도 관찰사와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지방 수령 등이 포함되었다.<sup>16)</sup> 그런데 밀암은 유배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구객일>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조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종성부사의 호의로 대부분의 조보를 관아에 찾아가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7)</sup>

<창구객일>의 중요한 서술목표가 아버지 갈암의 신원을 위한 정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조보를 활용하여 조정의 소식을 일기에 남긴 것은 매우 적절한 서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모략이나 터무니없는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이고도 풍부한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비록 갈암에 대한 완전한 신원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창구객일>이 그 서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서술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2) 간접적 해명

무죄유배를 드러내어 신원이라는 서술목표를 달성하는 또 다른 서술전략으로 주목할 것은 유배인을 대하는 주변인의 호의적 대응과 유배인의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와 인품을 증명할 일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15) 갈암의 유배 내력과 조보 활용에 대해서는 이병갑 편저(2014), 앞의 책, 201~209쪽과 최윤영(2011)의 앞의 논문, 6~48쪽을 참조하였다.

16) 박정규,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23~124쪽.

17) 이병갑 편저(2014), 앞의 책, 289~291쪽.



서술은 유배인이 억울한 죄에 연루된 것임을 드러내는 우회적이지만 강렬한 표현이다. 직접적 해명이 자칫 변명이나 합리화로 여겨질 수 있다면, 간접적 해명은 그런 우려 없이 직접적 설명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스승은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분들의 무죄유배를 우회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 (1) 유배인을 대하는 주변인의 평가와 대접에 대한 기록

〈북천일록〉은 주변인들의 호의적 태도 서술을 통해 스승의 무죄유배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날씨가 매우 추워 가야 할 길이 암담하였다. 도성의 사대부와 하인에 이르기까지 전송하러 나온 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길가에서 보는 이들도 백사공을 알거나 모르거나 할 것 없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18)</sup>

백사공이 유배길을 나섰을 때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전송하러 나왔다. 특히, 백사공을 알거나 모르거나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는 것은 백사공의 유배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민심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민심은 공기와도 같다. 그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들은 백사공이 정확히 어떤 죄에 연루되었는지 모르더라도 유배의 부당함을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전에 친분이 없었던 조원방이라는 인물이 유배길에서 백사공을 만나자 자신이 막 떠나온 북청의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선생을 위로한 일,<sup>19)</sup> 첨사 조대림이 그 자신도 연로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백사공

18) 日氣極寒，行路慘慘。都中士夫輿臺之來送者，不記其數。道傍觀者，無論知與不知，無不掩袂嗟傷。(〈북천일록〉 1618년 1월 9일)

19) 午抵逍遙嶺上，有士人趙元方，自北靑廻，步挽公車 通名而拜，仍道北靑事甚詳，慰勉行李亦勤，趙是無素分者也。(한낮이 되어서 소요령의 꼭대기에 이르자, 사인

의 유배길을 동행한 일 등 백사공을 대하는 주변의 호의적 태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sup>20)</sup> 이처럼 가는 길마다 백사공을 따듯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 백사공을 모시고 가는 하인들은 자긍심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1)</sup>

고을의 나이든 어른들이 다투어 와서 인사하였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오면 반드시 직접 맞이하면서 온화한 기색을 띠었으니 백사공을 본 자들은 마치 하늘의 신선을 만난듯이 덕을 사모하여 우러르느라 분주하지 않음이 없었다...“상공의 진퇴는 국사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에도 관련을 맺고 있으며 백성들이 희망을 거는 것에도 번번이 간절히 이마에 손을 얹고

---

조원방이 북청에서 돌아오는 길에 백사공의 수레를 보고서 통성명하고 절을 하고는 계속하여 북청에 관한 일을 아주 상세히 말한 뒤 유배길 위로함이 또한 정성스러웠는데 조원방은 평소 교분이 없는 사람이었다. <북천일록> 1618년 1월 17일)

- 20) 公使曹歸曰“既逾嶺矣，吾尙無事，道上勤君多矣。止此而返可也” 曹泣且言曰“吾年七十，不以老爲辭，長路隨公，只效吾誠也 不至顛踏足矣，何憚勤苦？況去路猶遠，公病尙危，吾身不死，誓不中返” 言甚慨切，聞者感嗟(백사공이 조대림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미 칠령을 넘었네. 나 또한 아무런 일이 없으나 길 위에서 그대를 수고롭게 한 것이 너무 많네. 이쯤에서 그치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네” 조대림이 울면서 말했다. “내 나이 70이지만 늙었다고 말하지 말게. 먼 길에 공을 따르면서 단지 내 성의를 다 하고 싶을 뿐이니 따르다가 꺼꾸러지지만 않으면 죽한테 어찌 간난신고를 꺼리겠는가? 하물며 갈 길은 아직도 먼데 공의 병은 오히려 위중하니 내 몸이 죽지 않는 한 맹세컨대 중간에서 돌아가지 않으려네.” 말이 심히 슬프고 절절하니 듣는 사람이 감탄하였다. <북천일록> 1618년 1월 18일)

- 21) 夕度萬世橋，至咸興城西。觀者塞街，莫不嗟傷。村民里婦，尙知鰲城相公焉。寓妓生德仙家，方伯都事判官，相繼來拜，邑中士人之刺見者，爭相迭進，猶恐後人，僕隸榮之，如忘遠謫之苦(저녁에 만세교를 지나 함흥성 서쪽에 도착하였다. 구경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워 탄식하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시골 사람들과 마을 아낙네들이 오히려 오성 대감을 알고 있었다. 기생 덕산의 집에 머물렀는데 방백, 도사, 판관들이 연달아 찾아와 인사하였고, 고을의 사인들로 명함을 전하여 만나려는 자들이 다투어 서로 번갈아 찾아오면서 오히려 남보다 뒤질까 염려하니 백사공의 귀양길을 따르던 노복들이 이를 영광스럽게 여겨 머나먼 귀양길의 고통을 잊은 듯했다. <북천일록> 1618년 1월 27일)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데 어찌 오늘 다시 이 변방에 유배 오실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생에서 상공의 풍모를 뵈 수 있으니 비록 저희들에게는 다행이라 하더라도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sup>22)</sup>

백사공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의 유배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국사가 잘 다스려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이들은 ‘백사공이 나라 정사에 깊이 관여하면 그 증험이 멀리 떨어진 시골 사람에게까지 느껴진다’, ‘훌륭한 목민관들은 대개 백사공이 추천한 사람이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당사자가 아닌 배행인이기 때문에 이런 칭송을 여과 없이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백사공의 명예회복을 도울 자료들이 될 것이다.

고을 안의 사내와 아낙들로 백사공의 행색을 보러 온 자들이 저잣거리인 양 많았는데 모두가 탄식하고 슬퍼하였다. 그중 한 늙은 아낙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백발의 재상께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낸단 말인가?”<sup>23)</sup>

저잣거리의 평범한 아낙이 백발의 재상이 유배 가는 정황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죄가 없다’는 표현은 어찌면 정충신이 의도적으로 쓴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 아낙의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늙은 신하의 고생’에 대한 안쓰러움을 드러내는 것 이상일 리 없다. 이것은 정충신이

22) 邑中父老, 爭相來見. 無論上下, 來必親接, 溫然借色, 人之見者, 若接天仙, 莫不景仰奔走. … 是以知相公之進退, 治亂有係, 蒼生屬望, 每切加額, 豈料今日復謫荒陬. 此生得覩懿範, 縱是生等之幸, 其於舉國生靈何?(<북천일록> 1618년 2월 7일)

23) 邑中男婦來見公行色者如市, 舉皆憚傷, 中有一老婦, 凝滯而言曰, 皓首相公, 非有罪者, 何謫之遠乎云(<북천일록> 1618년 1월 20일)

저잣거리 아낙네의 입을 빌려 선생의 무죄유배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첫답이 올 때에 세상을 떠났다.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마을의 여러 노인들과 여염 남녀들이 달려와 울부짖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마치 자신의 친족이 상을 당한 듯하였다.<sup>24)</sup>

유배 노정에서 몸이 상한 탓인지 오래 앓지도 않고 백사공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자 유배지 사람들은 백사공의 죽음을 마치 가족의 죽음처럼 슬퍼했다. 임금은 곧 백사공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예에 따라 상례를 치르도록 신속히 명을 내렸다.

신원은 억울함을 푸는 것이다. 민심이 백사공을 지지하고, 관작도 회복되었으니 신원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백사공의 유배에 얽힌 자세한 내막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제자들이나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북천일록>에는 유배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이 백사공을 동정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백사공의 무죄유배와 억울함을 주장하는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인 서술전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서술이 일기에 많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백사공의 사후에 곧바로 그에 대한 신원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유배인의 당당한 태도와 인품 서술

유배되신 어른들이 유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들과 그분들의 너그럽고 강직한 인품을 증언하는 다양한 서술들도 결국 신원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24) 鷄鳴易責. 叩地叫天, 無所逮及. 邑中諸老, 閭閻男婦, 莫不奔走號哭, 若喪天親  
(〈북천일록〉 1618년 5월 13일)

일찍이 <예기>를 추려 적은 것을 말안장에 걸고 다니셨는데, 선생님은 방 한 가운데 단정히 앉아 그 <예기>를 살펴보고 계시고, 자제와 우리 여러 명은 뜰 아래 혹 앉거나 혹 서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관청 노비가 성에 서부터 급히 왔는데 기운이 다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니, 우리는 모두 놀라 얼굴 빛이 변하여 도리어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이는 곧 법률에 따르기를 청한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알리고자 하였으나, 머뭇거리고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선생님은 보기를 마치신 후에도 변함없이 책 보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다. 조금 후 올린 저녁을 태연히 드시고 밤에 주무실 때에는 코 고는 소리가 우레 같았다.<sup>25)</sup>

위의 장면은 백사공에게 유배의 명이 전해지던 당시의 경황없고 초조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작 명을 기다리는 백사공은 태연히 평소대로 책도 읽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주무신다. 그러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다. 이 일화는 <북천일록> 1617년 12월 22일 자 일기에 부기된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석에 따르면, 원래 이 기록은 백사공 이항복의 손자 이시현의 <정사기문록>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이시백이 백사공의 손자인 이시현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것을 이시현이 <정사기문록>에 기록했는데, 이시현은 이 이야기가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해 준 이시백 어른도 세상을 떠난 후 이 일이 잊혀질까 걱정되어 대략 전말을 써서 온 집안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세귀가 다시 <북천일록>에 주석으로 보충한 것이다. 이항복의 증손자인 이세귀가 정충신의 일기에 이런 주석들을 붙여 간행한 것이 지금 전해지고

25) 嘗手抄禮記，掛諸馬鞍而行，先生端坐室中，看禮記，子弟及吾輩數人，在庭下，或坐或起，以待來報。忽有急刻，自城中奔馳而來，氣渴口不能言，衆皆失色，顛倒仰視之，乃請按律之報也。余欲白于先生，而遲回嗚咽，不忍啓口，先生覽畢了，無異色，看書不輟，少焉進夕飯，飲噉自若，及野就枕，鼻息如雷。(〈북천일록〉 1617년 12월 22)

있는 〈북천일록〉이다.<sup>26)</sup> 이처럼, 백사공이 유배를 당했을 때의 의연하고 당당했던 태도는 제자와 후손들의 기억과 기록을 통해 종횡으로 연결되어 전해졌다.

한편, 유배일기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독특한 내용이 있다. 유배 노정 중 지나는 곳의 지방관이나 지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었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대개 메모 정도의 간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품목들을 시시콜콜 기록하였다. 찾아와 줄 것이라 기대했던 어떤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등도 기록하였다. 유배길과 같은 심란하고 고생스러운 상황일수록 고마움과 섭섭함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이 〈북천일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유배 일행이 문천(文川)을 지날 즈음이었다.<sup>27)</sup> 일행 중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쉴 곳을 찾지 못하면 필시 병이 들 것이다. 조금만 가면 고원(高原)인데 그곳 수령 안대기는 나에게 지우를 입었으니 반드시 데면데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수고스럽겠지만 고원까지 곧바로 가자고 하였다. 일행은 고원에만 도착하면 반드시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이 끝나리라는 기대로 힘든 길을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정작 고원에 도착하였을 때 안대기로 부터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일행들은 한목소리로 기대를 저버린 안대기를 원망하고 헐뜯었다. 백사공이 전날 무리하게 고원에 도착하느라 추위에 떨었던 탓에 몸이 상하는 바람에 원망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그때 백사공은 “그 위인을 보니 연달아 자녀들을 잃어 심성이 이미 온전치 못하고 언사와 행동도 예전의 안대기가 아닌지라 오히려 애처롭고 가여워 불쌍히 여길 겨를도 없는데, 어찌

26) 신해진 역주(2020), 앞의 책, 4쪽.

27) 일행은 1618년 1월 22일에 문천을 지나 고원에 도착했다. 안대기에 대한 원망은 백사공이 일행을 타이르는 1월 24일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유감스러워 하라?”<sup>28)</sup>라며 일행들을 타일렀다. 비로소 안대기가 왜 기대를 저버렸는지,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 알고 보니 안대기는 얼마 전에 연달아 자녀를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대기의 이러한 사정은 백사공만 알고 있었을 리가 없다. 백사공이 알고 있을 정도면 유배 일행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도 말하였듯이,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유배길의 괴로움에 지친 사람들은 안대기를 원망하고 혈뜬었으나, 정작 몸이 상한 백사공은 오히려 안대기를 붙잡고 여기고 있다. 이런 일화를 통해 정충신은 스승 백사공의 너그럽고 따뜻한 인품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창구객일〉에도 이와 유사한 서술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분의 집이 송현에 있는 우리 집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 어찌 한번 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색이 다른 혐의를 면할 수 없어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니, 대개 그분은 좋은 사람인 듯합니다. 그 집안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신해년에 도망하여 다른 이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비로소 돌아와 뵈었는데, 그 여종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네가 신해년에 만약 우리 집에 있었다면 굶주림을 겪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살린 은혜가 있으니 복종하여 섬기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작은 일이나 역시 장점입니다.’<sup>29)</sup>

권두경과 서종태가 공무로 만나 대화하는 와중에 밀암집안에 대한 이야기

28) (且)觀其人, 連喪子女, 心性已失, 言辭舉止, 非復曩時之大奇, 尙哀憐之不暇, 奚且憾焉.(〈북천일록〉 1618년 1월 24일)

29) 徐曰, “然. 此人旅邸, 距吾松峴之居, 甚邇, 豈不欲一識? 而未免爲色目之嫌, 不果然. 聞之人, 槩是好人, 其家有一婢, 當辛亥歲逃爲人役, 近歲始歸現, 命之去曰 ‘汝於辛亥, 若在吾家, 當作餓孀, 彼有活汝之恩, 可往服事,’ 此雖小節, 亦他長處”(〈창구객일〉 1694년 6월 4일)

기가 나왔다. 권두경은 〈창구객일〉의 발문을 쓰기도 한 인물로 밀암과 같은 남인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서종태는 소론에 속하는 인물인데, 그가 먼저 ‘갈암 이선생이 무슨 말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적소에 감혀있지는 모르겠다’고 문제제기를 한다. 이에 대해 권두경이 ‘이선생의 본의는 민비를 구해주고자 한 것이었는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 바람에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되었다’고 답하며 갈암의 유배의 본질을 간명하게 요약하였다.<sup>30)</sup>

그런데, 이 대화에 이어서 나온 위의 일화가 흥미롭다. 서종태는 갈암의 평소 인품을 증명할 일화로 위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 그의 표현대로 집안 하인과 관련된 일이라 사소하다 할 수 있으나, 그런 작은 일에서 갈암의 의로움과 강직함 등이 드러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당색이 다른 서종태’라는 화자의 정체는 이야기의 객관성을 담보해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색이 다른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갈암의 인품은 훌륭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서술은 갈암의 ‘무죄유배’를 우회적으로 증언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유배 배행일기는 가까운 어른들의 유배를 배행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일기이다. 유배의 빌미가 되었던 상소문의 내용과 유배 관련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배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유배길에 나선 어른들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전하고 그분들의 당당한 태도와 인품을 서술한 이유는 ‘신원’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상소문 및 유배 결정 과정에 대한 직접적 해명의 서술방식은 신원을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에 유리하고,

30) 전두경과 서종태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병갑 편저(2014), 앞의 책, 188~189쪽을 참고.



주변의 호의적 대우와 유배인의 훌륭한 인품을 드러내는 서술은 ‘무죄’유배를 납득할 수 있는 공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원’을 위한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유배 배행일기는 일종의 역사적 증거물에 가깝다. 물론 ‘역사적 증거물’이라는 표현에 오해는 없어야 한다. 배행일기에 기록된 모든 정보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배인과 유배 배행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배행인은 유배인에게 유리한 정보와 정황들만을 기록에 남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원을 위해 유배 배행일기에 사용된 이와 같은 서술전략을 통해 가까이 있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다른 유배일기를 이해할 단서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배 배행일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독자를 의식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일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록물이다. ‘일기’라는 장르명으로 함께 분류되지만, 현대의 일기가 대개 매우 사적인 기록이라면 유배 배행일기는 후손들과 역사를 향해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의 누구라도 만약 가까운 분의 시련을 곁에서 함께 하게 된다면, 그분의 억울함을 해명해 줄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의 일기 문학과 옛 일기 문학 사이에 놓인 간극이 그리 깊지 않은 듯하다.

## 참고문헌

### 1. 자료

〈南行錄〉(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가람 古 915.1-N15)

『밀암집』(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https://sillok.history.go.kr/>>)

### 2. 논저

박정규,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202쪽.

신해진 역주, 『북천일록』, 보고서, 2020, 1~374쪽.

이병갑 편저, 『창구객일 연구』,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4, 1~656쪽.

이성형, 「만운 정충신의 백사선생북천일록 연구」,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45, 2016, 157~192쪽.

이승복, 「유배체험의 형상화와 그 교육적 의미-조선후기 국문 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1~62쪽.

임재완 편역, 『백사 이항복 유목첩과 북천일록』, 삼성문화재단, 2005, 1~171쪽.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1~303쪽.

최강현, 「남정일기를 살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어문논지』 4-5, 1985, 121~130쪽.

최윤영, 「창구객일의 서술방식과 기록의식」,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 1~102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Descriptive Strategies of Exile Diaries

Cho, Su-mi

The Diary of a Man Who Followed Exile is a diary that records the experience of a father, grandfather, or teacher who is going to exile by a son, grandchild, or disciple. As can be guessed from the relational peculiarity of the exile and the accompanist, the exile and the accompanist are inevitably very closely connected emotionally. Therefore, the diary of the exile does not merely record the experience and the subconscious of the individual without any purpose and inten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diary is to claim the injustice of exile and to restore their damaged reput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Namhaengnok>, <Bukcheonilrok>, and <Changguekil>, it was found that narrative strategies of direct explanation and indirect explanation were used to achieve such narrative goals. The descriptive method of direct clarification contributes to securing the basis for identity by providing diverse and rich information. Indirect explanation is not an objective basis, but it is a very intense and effective narrative strategy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sympathy that can convince innocent exile.

Through the process of examining what narrative strategies were used in the exile diary for identity, we can get clues to understand other exile diaries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and furthermore, we can identify the universal emotions of human beings who are afraid of history.

## Key Words

The Diary of a Man Who Followed Exile, <Namhaengnok>, <Bukcheonilrok>, <Changguekil>, restore their damaged reputation, narrative strategy

논문투고일: 2023.01.15.  
심사완료일: 2023.02.06.  
게재확정일: 2023.02.08.